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5. 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, 캘리포니아 유대교 회당 총격으로 여성 1명 사망
 - 미국에서 反유대주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, 4.27 캘리포니아 파웨이市的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중인 신자들을 겨냥한 총기테러 발생(여성 1명 사망·3명 부상)
- 美, 캘리포니아에서 '사제폭탄 대량살상' 테러음모 적발
 - 4.29 LA타임즈는 FBI가 위장수사를 통해 캘리포니아 LA 남부 해안의 한 행사장에서 대량살상 테러를 계획하던 전직 군인*(남성, 26세)을 체포하였다고 보도
 - * 同인은 ISIS에 충성을 맹세한 자로, 사제폭탄(IED)을 폭발 또는 차량돌진 후 총기난사 등의 방법으로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
- 美, '초등학교 총기테러' 모의한 초등학생 2명 검거
 - 4.30 ABC방송은 경찰이 테네시주 사우스컴벌랜드 초등학교에서 교사·학생들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후 자살하려는 계획을 모의하던 초등학생 2명을 검거하였다고 보도
 - * 학교전담 경찰관이 이들의 범행계획 소문을 입수, 직접 그린 총기반입 경로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(살인모의 혐의로 기소)

유럽

- 뉴질랜드,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폭발물 추정 물체 발견
 - 4.30 AP통신은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건물에서 폭발물 의심물체와 탄약이 발견되어 안전하게 제거하였으며,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보도

- 터키, 안작데이(ANZAC Day)에 테러모의한 ISIS 조직원 체포
 - 4.24 터키경찰은 안작데이* 행사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폭발물 또는 차량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시리아 동부 출신 「압둘케림 힐레프」(26)를 체포했다고 발표
 - * 1915.4.25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투르크(터키) 갈리폴리에 상륙작전을 하다 전사한 호주·뉴질랜드 연합군을 추모하는 호주·뉴질랜드의 국가기념일

아 · 태평양

- 스리랑카, 테러용의자 은신처 습격 7명 체포
 - 4.26 스리랑카군은 동부 사만투라이 마을 인근 테러용의자들의 은신처를 습격하여 7명을 체포하였으며, 작전 종료 후 은신처를 수색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시신 15구를 발견했다고 발표
 - * 軍은 시신 15구 가운데 일부는 자살폭탄테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
- 스리랑카, 이슬람 라마단 앞두고 테러공포 확산
 - 5.1 기독교 예배당들이 5.5부터 재개방할 것이라고 공표한 가운데, 안보당국은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라마단 시작일(5.6)에 맞춰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군·경의 경계태세를 강화

중 동

- 국제사회, 사우디의 테러혐의자 집단 처형을 비판
 - 4.13 사우디가 테러혐의자 37명을 처형한 것에 대해, UN인권대표는 “37명중 33명이 공정한 재판기회를 얻지 못했다”고 비판, 국제엠네스티는 “처형자 중 14명은 '11·'12년 이스탄주 반정부 시위 참여자”라며 “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영터리 재판이 이뤄졌다”고 지적
- ISIS, 수천억원 자금력으로 전세계에 테러전파
 - CNN은 ISIS가 시리아에서는 패했으나, 최대 3억달러(약 3,400억원)로 추정되는 테러자금을 바탕으로 잔존 조직원과 동조자들이 이슬람 네트워크 통해 자금조달·인력수급·폭탄제조 등 전문지식을 전세계에 전파 중이라고 보도

2018년 나이지리아 연쇄자폭 테러

- '18. 5. 1 나이지리아 북동부 아다마와주 '무비(Mubi)' 타운에 위치한 모스크(이슬람성원)에서 2차례 연쇄자폭테러가 발생하여 86명이 사망
 - 폭탄조끼를 착용한 자폭테러범 2명(10대 추정) 중 1명이 모스크에서 예배시작前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1차 자폭하였고
 - 폭발직후 모스크에서 도망치는 사람들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다른 1명이 2차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

- 테러사건 이후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없었지만, 同테러가 발생한 '무비(Mubi)' 타운은 '14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이후 지속적인 테러가 발생한 만큼 보코하람 소행으로 추정

< '무비(Mubi)' 지역 주요 테러 사건 >

- ▷ '12.10월 현지 학교 기숙사에서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테러범 공격(40명 사망)
- ▷ '14. 6월 무비 인근 카방가지역 축구경기장 주변에서 폭탄 폭발 (40여명 사망)
- ▷ '17.11월 무비 웅구와르슈와지역 모스크에서 무슬림 대상 자폭테러(50여명 사망)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서구식 교육은 죄악' 이라는 의미로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 설립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4.5), 미국('13.11), 영국('13.7)
- (핵심인물) 아부바카 세카우(최고 지도자)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 마그렙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ISIS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주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 차드호 연안, 니제르 남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정부시설, 기독교도 및 일반 마을을 급습하여 주민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월 「세카우」가 ISIS와 연대를 선언하자, ISIS는 보코하람을 '서아프리카 지부(West Africa Province)'로 인정한다는 성명 발표